

“지역감정은 특정 정치인을 위해 조장됐다” 지금 여기, 한국 사회 과학적 해부

세상물정의 물리학

김범준 지음

흔히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물정(物情)은 ‘세상의 이리저리한 실정이나 형편’을 뜻하는데, 일반인들이 연구실에 갇혀 통계·수학공식과 씨름하는 물리학자에 대해 그러한 선입견을 갖기 십상이다.

‘세상물정의 물리학’은 물리학자인 김범준 성균관대 교수가 통계물리학이라는 ‘다른 눈’으로 바라본 한국사회 현상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낸다. ‘복잡한 세상을 꿰뚫어 보는 통계물리학의 아름다움’이라는



인문학적으로 해부한다.

저자는 ‘메르스 후진국 물리학자의 뒤늦은 한마디’에서 지난 6~7월 발생한 ‘중동 호흡기증후군’(MERS) 사태를 물리학자 헬빙의 ‘탈출상황에서의 공황’ 논문을 통해 분석한다. 사람들을 상호작용하는

부제 아래 물리학자는 지역감정 문제, 교통정책, 공공성과 경제효율의 딜레마, 인터넷과 허니버터칩의 성공 비결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과학적이면서

고전역학적인 입자로 놓고 공황상태에 빠진 사람들의 움직임을 물리학적 방법을 이용해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한 논문이다. 저자는 “논문의 결론중 인성감각 기억하는 것은 출구가 어디인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의 중요성이다. 집단적인 공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옳은 정보의 투명한 공개다. 정보의 공개가 공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가 공황을 만든다”면서 정부의 초기 방역실패와 비공개 원칙을 과학적으로 비판한다.

영·호남 지역감정에 대한 분석도 흥미롭다. 박정희 후보와 윤보선 후보가 경합한 1963년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한 후보의 득표율을 가지고 인구비례 지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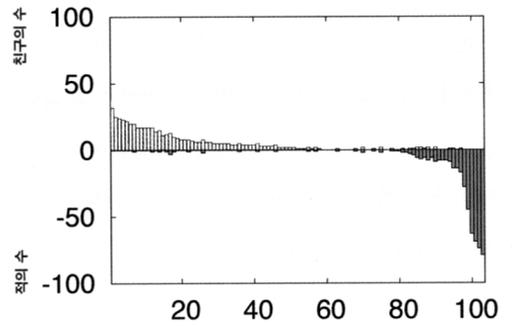
그려보니 지역감정은 길게 잡아 30년도 안되는 한국 현대사의 압축된 기간에 만들어지고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는 “지역감정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평범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투표에 의해 선출되기를 바란 정치인을 위해 조장된 것”이라고 발언한다. 또 SNS 영향력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 성공을 좌우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해 SNS의 전략적인 활용방안을 제안한다.

친구와 적에 대한 해석도 눈길을 끈다. 친구 관계는 3년이 지나도 여전히 70%는 친구관계로 남아있는데 비해 적 관계는 3년이 지나면 50%만이 유지된다는 것. 다시 말해 친구관계의 지속성이 적 관계의 지속성보다 크다는 의미이다.

또한 ‘네트워크로 본 이름의 유행 변천사’와 ‘혈액형과 성격의 상관관계’ 내용도 이채롭다.

춘자·영자·옥순·복순·금순(1950년대)→영희·정옥·혜숙(1960년대)→은주·경미·미선·선화(1970년대)→민정·수진·지



막대그래프를 살펴본 친구와 적의 숫자. 친구가 많은 사람은 적이 거의 없고, 적이 많은 사람은 친구가 거의 없다. <동아시아 제공>

은(1980년대)→민지·은지·지원(1990년대) 등 시대별로 유행한 이름 연구는 독특하다.

무엇보다 저자는 ‘개미는 알고 정치인은 모르는 비밀’ 등 30쪽의 글을 통해 ‘집단 지성’을 강조한다. 대총대총 ‘무니만’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상명하복

의 계층구조만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제언은 경직된 한국사회가 경정해야 한다. 이쯤 되면 통계물리학은 ‘세상의 이치’(物理)를 꿰뚫는 유용한 도구임을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동아시아·1만4000원>/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삶의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다양한 세상 사람들 이야기

애니

정현아 지음



영화들과 오버랩되는 아내의 삶을 비롯해 딸 등 가족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지난 2007년 문학동네 작가상을 수상한 정현아의 ‘달의 바다’는 많은 이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울한 백수 주인공이 미항공우주국(NASA)의 우주비행사가 되었다는 고모의 이야기를 그린 ‘달의 바다’는 치밀한 이야기 전개와 따뜻한 시각이 인상적이었다. 스물 다섯 젊은 작가가 써낸 이 책을 읽은 이들은 분명 그녀의 다음 행보를 기다렸을 것이다.

정현아가 6년만에 두번째 소설집 ‘애니’를 펴냈다. 책에는 삼십대 중반이 된 작가가 서른살부터 써온 8편의 소설이 실려 있다. 세상을 살며 다양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낸 작품들이다.

표제작 ‘애니’는 아내와 헤어진 후 운전 교습을 하며 살아가는 남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어느날 ‘권’은 새로운 교습생을 배당받는다. 이제는 60대에 접어든 여배우 마리이다. 한 때 자신의 우상이었던 그녀에게 운전을 가르치게 된 권은 ‘애니’를 비롯해 그녀가 출연했던

영화를 과 오버랩되는 아내의 삶을 비롯해 딸 등 가족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배우 시절 겪은 어떤 사고로 자동차를 무서워하게 되지만, ‘목숨을 걸고’ 운전을 배우야 하는 마리아가 가고 싶은 곳은 어느 도시의 교도소. 그 곳에 달기 위해 운전을 배우며 다양한 이야기가 전개된다.

책에는 또 우울증에 시달리다 결국 가족에게 버림받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그랜드 망상 호텔’, 십대 소년인 나와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어린 동생을 돌보주는 1층 아주머니의 이야기가 인상적인 ‘빈방’ 등이 실려 있다.

그밖에 동성애자로서의 삶을 버리고 가족에게 돌아가 이성애자의 삶을 살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해막’, 섭식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오프하우스’ ‘리브레타’ 등을 만날 수 있다. <문학동네·1만2000원>/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8=전국도를 박물관으로 만들며 문화유산답사기를 이끈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가 다시 돌아왔다. 7권 제후편 이후 일본편으로 무대를 옮긴 지 3년 만에 8권 ‘남한강편’으로 끝나는 여정을 이어간다. 영월에서 시작해 단양, 제천, 충주, 원주, 여주를 거쳐 한강을 향해 이어지는 답사기는 남한강 유역에 산재한 수려한 경관과 평화로운 강변 마을의 풍경, 각지의 문화유산에 얽힌 풍성한 이야기로 펼쳐진다. <창비·1만8000원>

▲지금은, 유라시아시대=경제협력개발기구(KOEI)의 ‘지금은, 유라시아시대’는 동북아 경제협력과 한반도의 미래, 더불어 유라시아 교통문제에 대한 철학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가 풍광에게 필요한 ‘제3의 이웃’이 되자고 전한다. 인구는 적지만 넓은 땅과 풍부한 자원이 있는 몽골로서도 국제협력



이 자국의 미래를 좌우할 철체철명의 과제인 만큼 한국이 그 불모를 터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구현도 한층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우공이산·1만7000원>

▲설탕 한 조각 코란 한 잔 그리고 트위터=나이 여든들, 딸 하나, 절친 셋에 전 남편 무덤 넷인 레나테 베르코만. 노인성 당뇨와 혈압이 있지만 정장대거나 불평하는 건 딱 질색이다. 코란 한 잔이면 걱정 끝. 이웃에게 가장 걱정되고 기질한 할아버지 몰라도, 그게 다 원직 지기고 사람도리 하느라 듣는 소리다. 80대 할머니에 대한 고정관념을 경쾌하게 뒤엎는, 현란하고 유



쾌한 일상이 만들어내는 깨알 같은 재미로 가득한 소설이다. <니케북스·1만2800원>

▲비정규 사회=우리는 비정규직이거나, 이들의 노동으로 유지되는 사회를 살아간다. 그럼에도 비정규직은 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누리지 못하고 사회적 보호에 취약하다. 임금이 낮아 오래 일하며, 그 결과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된다. 더 많은 권리가 필요한 이에게 가장 적은 권리가 보장되는 현실에서, 비정규직은 열등한 신분이 된다. 책은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아이러니를 넘어서 세상을 상상하게 한다. <후마니타스·1만4000원>



▲뇌라도 섹시하게=tvN의 예능 프로그램 ‘뇌섹시대-문제적 남자’ 이시한이 알려주는 섹시한 뇌의 정제와 섹시한 뇌를 만드는 훈련법. 저자는 이 사회가 원하는 ‘섹시한 뇌’는 정보파악력, 비판적 사고력, 통찰력, 창의력을 갖춘 뇌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능력은 비단 타고나는 것만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멘사 회원답게 저자는 핵심을 파고들어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훈련법을 시원스럽게 알려준다. <다봄·1만5000원>

▲꿈벌과 게릴라=미래는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야 하는 어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책. 현재 활동하고 있는 비즈니스 세계와 조직에서 차별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혁신을 위한 선언서’다. 그 어느 때보다 혁명이 필요한 지금,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혁명을 일으켰거나 이뤄졌다면 그것을 조직 내부에서 어떻게 유지하고 이끌어 나갈 것인지 제시한다. <세종서적·1만9500원>

어린이 책

▲만화 서유기 1~4=‘서유기’는 잘 알려진 대로 삼장법사와 그의 제자인 손오공과 저팔계, 사오정이 불경을 구하러 부처가 있는 서천 천축국(인도)으로 떠난 여정 길에서 겪는 모험을 그린 이야기다. ‘서유기’ 원작 100편의 방대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재미있으면서 중심이 되는 내용만 골라서 네 권의 흥미진진한 만화로 새롭게 선보였다. <에디터·각 권 8000원>



▲육심날 때는 어떻게 하나요?=아이들이 스스로 절제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그림책. 육심날 때 어떻게 하는지 보여 주

고, 좋아하는 것을 할 때 감정 변화를 섬세한 말로 표현했다. 어느 정도면 충분한지, 충분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가르쳐준다. 아이와 함께 책을 보며 충분히 하고 느낄 때를 알아채고 절제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 수 있다. <풀빛·1만원>

▲친구 사이는 어려워=소크라테스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 질문에 곧장 답을 주지 않고 거꾸로 질문을 던져 대화를 통해 답을 찾아 나가도록 했다. 이를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라고 한다. 책은 주인공 소크라테스 문답식 대화를 통해 학교와 가정 친구

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의 답을 찾아간다. <학교재·1만2000원>

▲관찰한다는 것=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해 주는 힘인 관찰의 의미를 생명과학자 김성호 교수가 25년간 이어온 생생한 경험을 통해 전해준다. 저자의 생생한 경험은 물론 티코 브라헤, 레이우엔훅, 제인 구달, 석주명, 파브르 등 관찰에 삶을 바친 과학자들의 감동적인 이야기와 함께 관찰의 속성 하나하나를 다양한 일화를 들려주며 흥미롭게 소개한다. <너머학교·1만1000원>

<p>광주일보 작은만남 큰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h2>개업·성업 안내</h2> <p>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p>					
<h3>동양철학원</h3> <p>동구 불로동 11-2(평화시장영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p>	<h3>무크광주세정점</h3> <p>서구 상무대로 세정아울렛2층 258호 신사회, 수취회, 캐주얼, 지갑, 벨트, 기방 디자인 및 품질향상, A/S 보장 ☎062)370-9258</p>	<h3>미정</h3> <p>동구 금남로2가 구동구청 뒤 옛날 구미향 계절 생선회, 일식전문 대표 김봉식 ☎062)236-3177</p>	<h3>고전방</h3> <p>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p>		
<h3>서원식당</h3> <p>동구 금남로2가 구동구청영길 백반, 생선회, 오리로스, 병치조림, 갈치조림 단체모임에약함 대표 김영호 ☎062)227-9769</p>	<h3>복구모아공인중개사</h3> <p>북구 중흥동328-15 중흥모아@후문 아파트, 원룸, 상가, 임야 임대 및 매매전문 대표 고광욱 ☎010-3624-0058</p>	<h3>이가회관</h3> <p>동구 금남로2가 충정동사무소 뒷길 백반, 생선회, 대구탕, 이국밥, 낙지볶음 각종생선조림, 단체모임에약함 대표 이복례 ☎062)224-1541</p>	<h3>천수사백마장군</h3> <p>북구 중흥동800-28 동부교차로 인생상담, 병점, 사주, 궁합, 부처 영로로 봅니다 대표 허길배 ☎010-2828-2008</p>	<h3>노루포인트&yb디자인</h3> <p>북구 필문대로 서방사거리 이마트 건너편 이프트주책, 상리도달링, 신축조립식주택시공 싱크대 및 불빛, 조명장, 직영제, 제작 및 시공 ☎010-3603-0806</p>	<h3>광주학당</h3> <p>북구 서방사거리 관리사무소 옆 2층 한글 문맹반, 초등반/영어 기초반 - 중급반 한자, 한문반/컴퓨터반/오전/오후/0/2반 ☎062)512-5788</p>
<h3>신신예술의집</h3> <p>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p>	<h3>회암관</h3> <p>북구 두암동 예덕병원 옆 정월사 정문 앞 소머리국밥, 황태국밥, 수육 단체예약순심 환영 대표 김미자 ☎062)261-5912</p>	<h3>일등모바일</h3> <p>동구 금남로2가 7-4 (구 동구청 1층) 핸드폰·악세사리 도매 전문점 ☎010-4655-9689</p>	<h3>늘부부대찌개문화전당점</h3> <p>동구 광산동 56-1 (번지우상실업) 부대찌개, 찌갈구이 점장 최은진 ☎062)222-9290</p>	<h3>석당화랑</h3> <p>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p>	<h3>토산철학원</h3> <p>북구 두암동 예덕사부인과 정문 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p>
<h3>똥이레</h3> <p>동구 대의동 10-1 바다장어, 쭈꾸미, 봉장어, 사브사브, 돌란볶음, 소금구이, 양념구이, 계절떡국 대표 윤영희 ☎062)234-7949</p>	<h3>박당화랑</h3> <p>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p>	<h3>광주천가꾸기협회의</h3> <p>동구 수기동 명성예식장 앞 여성 취미교실, 서양화, 수채화 무료 초보자 환영 ☎011-602-2883</p>	<h3>블르메플라워샵</h3> <p>동구 공동 67번지 (예술의거리 중앙초교등정앞) 경조화환, 동·서양관, 꽃바구니, 꽃다발 대표 임미랑 ☎062)653-3676</p>	<h3>광주화랑</h3> <p>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동·서양화 매매 및 무료감정 고급표구 제작판매 대표 박종환 ☎062)232-4784</p>	<h3>이경숙갤러리</h3> <p>동구 계림동 서방사거리 이마트 옆 친환경원목가구, 돌침대, 흙침대 식탁, 화장대, 좌탁, 돌소파전문매장 대표 이경숙 ☎062)224-2880</p>